



 http://csf.kiep.go.kr/	「이슈&트렌드」
	中 지역별 출생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작성 CSF (자료감수: 김익기 중국인민대학 석좌교수)
2018. 08. 24.	

- 올해 상반기 중국 여러 지역에서 출생 인구가 하락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중국 전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산둥성(山东省)에 올해 들어 큰 변화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음.
- 산둥성 옌타이(烟台)의 경우, 올 상반기 출생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16% 가량 급감한 2만 6,902명에 그쳤고, 웨이팡(潍坊), 쑤보(淄博) 등 산둥성 기타 도시의 출산율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음.
 - 산둥성 지역 통계에 따르면, 옌타이 출생 인구 중 둘째로 태어난 아기는 1만 2,8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웨이팡시의 위생 및 출산 계획 위원회(卫计委) 통계에 따르면, 올해 웨이팡시의 출생 인구는 6만 4,4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% 감소했으며 둘째로 태어난 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9% 감소한 4만 3,421명으로 집계됨.
 - 출산율 하락 추세는 비단 산둥성만의 문제가 아님. 올 상반기 장쑤성(江苏省)의 출생 인구도 전년 동기 대비 12.8% 감소한 38만 3,000명에 불과했으며, △ 구이저우(貴州) △ 텐진(天津) △ 후베이성(湖北省) 등지에서도 올 상반기 출생 인구 감소 소식이 전해짐.
 - 산둥성은 노령화가 중국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.4%에 달해 전국 평균 보다 높았음.
 - 중국은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2자녀 정책을 실시했으나 2017년도 출생 인구는 2016년도 보다 63만 명이 감소한 1,723만 명에 그쳐 2자녀 정책이 출생 인구의 하락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음.
 - 중국은 2018년 상반기에도 2자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고령화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.
 - 베이징행정대학(北京行政学院) 인구노동경제연구소(人口所) 판젠레이(潘建雷)박사는 “몇 년 전 이미 3~5년 후 출생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, 지금 그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.” 며 “가임 여성의 수가 급감하고 혼인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, 출생 인구 수 감소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.” 고 설명함.
- 저출산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향후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.

- 중국 국가통계국(国家统计局)에 따르면, 2007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억 5,34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1.6%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.1%로 1억 636만 명을 기록했음.
 - 10년이 지난 2017년 60세 및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2억 4,090만 명 및 1억 5,8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.3%와 11.4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.
 - 국무원(国务院)이 발표한 《국가인구발전계획 2016-2030년(国家人口发展规划(2016-2030年))》에 따르면,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-2030년 증가 속도가 명확히 빨라져 2030년이 되면 약 25%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 - 반면 2030년 기준 0~14세의 유소년 인구비는 17%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스지레이(石智雷) 후베이 인구학회 부의장은 “출산 인구가 줄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,” 이라고 지적하면서 “서부 여러 지역의 출산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선진국의 출산율이 낮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,” 고 설명함.
- 최근 몇 년 간 극심한 인구 유출 및 낮은 출산율로 동베이(东北) 지역의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연해 지역에서는 인구 저령화 현상이 나타남.
- 랴오닝 정부는 《랴오닝성 인구발전계획 2016-2030년(辽宁省人口发展规划(2016—2030年))》에 따라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모색 중임.
 - 올해 6월, 랴오닝성 고령공작위원회판공실(辽宁省老龄工作委员会办公室)이 발표한 《랴오닝성 2017년 노인인구 정보 및 고령 사업 발전 상황 보고서(辽宁省2017年老年人口信息和老龄事业发展状况报告)》에 따르면, 2017년 말까지 랴오닝성의 호적인구는 총 4,232만 5,700명이며, 그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8만 7,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.7%를 차지해, 랴오닝성이 이미 ‘고령사회’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.
 - 제6차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, 랴오닝의 출산율은 1%로 중국 전체 평균인 1.5%를 한참 밑돌고 있으며, 심지어 일본과 한국보다도 낮음.
 - 랴오닝의 인구 고령화 배경에는 △ 출생률 감소 △ 수명 연장 △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꼽히고 있음.
 - 랴오닝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2017년 랴오닝을 떠난 인구는 8만 9,000명으로 △ 지린성(吉林省) △ 헤이룽장성(黑龙江省) 다음으로 인구 유출이 많음.
 -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베이 및 쓰촨성(四川省)과는 다르게 대량의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는 연해 지역에서는 인구 저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 - 광둥성(广东省) 지역의 노동 인구 비율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2017년 말 기준 상주인구는 1억 1,169만 명으로 2016년 말 보다 170만 명이 증가했음.

- 65세 이상 인구는 962만 6,300명으로 이 지역 인구의 8.6%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15~64세 인구가 8,283만 8,900명으로 전체의 74.2%를 차지하고 있음. 

참고자료

제일재경(第一财经), 21경제망(21经济网), 매경망(每经网), 재경망(财经网) 등